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이종상
제 목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했던 한양사이버대학교		
<p>난 전문대 졸업 학기에 조기 취업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직장도 정 직원 이고, 학교 졸업만 하면 사회생활만 꾸준히 하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p> <p>하지만, 이때부터 내 겐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 고민은 전문학사로만 전문직을 유지할 수 없던 직업이기에 학위가 필요했고, 더불어 관련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다. 마침, 회사 대표님께서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그날부터 나는 사이버대학교에 대하여 열심히 찾아보며 입학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설계하였다.</p> <p>나의 꿈의 설계의 목표는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자와 관련 대학원 졸업이었다. 입학하기도 전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심 낸 것처럼 보이지만, 꿈은 크게 가지라는 부모님 조언이 있었고 나 또한 꿈은 크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발판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있었기에, 나는 2010년 03월 1학기 편입학에 지원하였다. 노력의 결과는 결실로 이루어졌다.</p> <p>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하였다.</p> <p>사이버대학교 합격을 했지만, 많은 것들이 이 전에 다녔던 전문대학과는 달랐다. 기존에는 수강 신청 방법, 강의 문의, 교수님 면담 등은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 보고 면담하고 하면 해결이 되었지만, 사이버대는 모든 문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났으니, 그것은 개강 파티 및 오프라인 모임이었다. 개강 파티에는 정말 많은 학우와 교수님들이 왔다. 그 만남의 시간은 짧다고 하면 짧지만 만남이 돌이켜 보면 내 사이버대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해낼 수 있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p> <p>첫 오프라인 모임은 개강 파티였다.</p>			

여러 선배 및 동기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 뵈었는데, 나는 이날부터 2년간 정보통신공학과와 인싸가 되기 시작한 날이다...

2010학년 1학기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임원중 부총무가 되었으며, 2학기엔 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4학년 대표를 맡아 1년간 학우들을 도우며 함께 생활하였다. 다시 돌아와,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수업 방법, 시험 방법, 리포트 제출 방법 그리고 교수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들을 수 있다. 코로나 시절인 요즘은 못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오프라인 모임이 열린다면 꼭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나의 학교생활은 그야말로 ‘인싸’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활동하였다. 위에 언급했듯이 들어가자마자 부총무, 총무를 시작으로 4학년 때는 학년 대표를 맡아 생활하였고, 정보통신공학과 김태우 교수님 지도로 ‘12 스퀘어’ 라는 동아리를 설립 하였는데, 그때 설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학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 이었는데, 수업은 회사에 다니면서 병행하니 힘든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업무시간에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피해 밤이나 새벽에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따로 필기하여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그 노트는 시험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이버대 재학생 중 많은 학우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여 시험을 하면 된다. 하지만 업무상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교수님 혹은 조교에게 미리 연락하여 대체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져 시험을 못 보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고 있다.

사이버대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일단 학교생활의 꽃인 축제도 있고, 각 인사의 초청 세미나, 기술 세미나, 여행 탐방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없어진 행사도 있을 것이다. 내가 재학시절 기억 남은 학교 행사는 ‘글로벌 통’ 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 및 통과하여서 필리핀 마닐라와 수빅를 탐방하였고, 그곳 현지 네트워크 및 통신 구축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위한 보고서도 작성 및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험 및 여러 세미나를 통해 학업적인 면뿐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는 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뚜렷했다. 대학원과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자가 목표였다.

사실 전문대 재학 시절 나는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표는 한양대학교였다. 하지만 중간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직장을 택했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계속 가고 싶은 목표가 생각났다. 물론, 사이버대를 진학하여서 학위를 마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양대를 가고 싶었다. 4학년 때부터 계속하여 교수님 그리고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았고, 준비하였다. 그리고 손규식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고, 한양대 교수님 찾아 뵈어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준비 방법과 대학원 생활에 관하여 알려 주셨다.

대학원 입학 면접을 진행하였고, 발표날을 기다렸다. 사이버대 많은 교수님과 학우들의 응원으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2년간의 석사 생활을 마치고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우리나라 브랜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까지 완료하였다. 더불어 같은 연구실에 파트타임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한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내게 한양사이버대학교를 택한 것은 정말 좋았던 일이라고 하고 싶다. 한양사이버대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내 꿈을 펼치려 노력하였던 20 대 내 모습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후배들을 위하여 교수를 하고 싶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느 누가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의 길도 조언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만 믿고 따라왔다. 근데 지금 결과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는 내 모교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 주고 싶다. 그게 나의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난 사이버대학교에서 이루었듯이, 반드시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 하고 있다.

이종상 화이팅!